박희승의
현대인을 위한 禪의 지혜 ⑪ 생사 윤회의 정견과 禪



▶한줄 요약
부처님이 중도를 깨치고 무아의 지혜를 말씀하셨다고 해서 '내가 무아'를 깨치지 못했다면 '내가 있다'는 분별망상을 없애지 못한다.

무명중생에겐 '脫생사윤회' 멀고 먼 일

죽음의 괴로움은 인간의 가장 근본이 되는 문제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에 두려움을 느낀다. 아무리 부자여도 권력이 많고 부귀영화를 누릴지라도 죽음의 괴로움은 벗어날 수가 없다. 그리하여 종교에서는 죽음 이후 다시 태어나는 윤회나 죽어서 천국이나 지옥 가는 사후 세계를 말한다.

부처님께서는 깨치고 첫 설법인 〈초전법륜경〉에서 당신은 "중도(中道)를 깨달아 죽지 않는 불사(不死)의 문을 열었다"고 설하셨다. 이것이 부처님의 중도 대선언이다. 죽지 않는 문을 열어 보임은 부처님이 우리 인류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부처님은 우리 인류에게 생사의 괴로움에서 해탈하여 영원한 행복의 길을 알려주신 것이다.

삶과 죽음의 괴로움 지속되는 윤회 문제

부처님께서는 삶과 죽음의 괴로움에서 해탈하는 깨달음의 지혜를 알려주셨지만, 우리 인간은 부처님의 깨달음과 지혜의 말씀을 믿고 행하지 않으니 생사 윤회의 괴로움을 받는다. 인간이 생사 윤회의 괴로움에서 해탈하지 못하는 이유는 스스로 일으킨 어리석음 때문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명(無明)에 덮인 중생들은 갈애에 속박되어 치달리고 윤회하므로 그 시작점을 꿰뚫어 알 수 없다."(〈상응부경전〉)

인간은 깨달음의 지혜를 알지 못하고 스스로 중생이라는 착각에 빠져 분별망상을 일으켜 삶과 죽음의 윤회 바다를 헤매고 있는 것이다. 누구든지 깨달음의 지혜를 공부하여 믿고 행하면 생사 윤회를 해탈하여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고 부처님은 안내한다.

불교와 힌두교의 윤회설은 같은가?

그런데, 지금 우리 주변에서 불교를 믿고 수행하는 불자들 사이에도 이 윤회 문제에 대하여 적지 않은 혼돈과 논란이 있다.

먼저, 윤회는 힌두교의 교리이고 부처님은 무아를 말씀하셨으니 불교에서는 윤회가 없다는 주장이다. 힌두교가 윤회를 말하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인도의 4성 카스트제도를 합리화하는 브라만 계급이 만든 윤회설이 있다. 금생에 브라만으로 태어난 것은 전생에 그만큼 선한 업을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금생에서 지은대로 내생에 태어난다는 힌두교의 윤회설은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는 숙명론(宿命論)이다.

이와 같이 힌두교의 숙명론적인 윤회설과 달리 불교의 윤회는 지은대로 받는다는 인과설(因果說)은 같다고 볼 수 있지만, 불교는 운명론이 아니라 깨달음을 통한 해탈의 길을 제시한다. 즉, 불교는 숙명론의 윤회가 아니라 윤회에서 해탈하는 깨달음의 가르침이다. 힌두교는 윤회하는 진아(眞我)를 말한다면, 불교는 윤회에서 해탈하는 중도 무아의 깨달음을 말하니 근본적으로 다른 길이다.

남방 상좌부 승가의 명상법

그런데, 근래 남방 상좌부 승가의 전통에서 사마타 위빠사나 수행법으로 공부하고 온 분들이 "윤회가 불교의 핵심이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어느 이름 있는 재가 수행자는 자신의 저서와 방송을 통하여 "불교의 핵심은 윤회이며, 수행을 통하여 전세 5생과 후세 5생을 관하는 수행"으로 자기의 전생과 내생을 보았다고 주장한다. 부처님 말씀을 모아 놓은 경전의 곳곳에서 전생과 윤회에 관한 말씀이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 불교에서 윤회를 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불교의 핵심이 깨달음이 아닌 윤회라고 주장하니 이것은 참으로 당혹스러운 일이다. 더구나 전세 5생과 내세 5생을 관찰하는 수행과정을 말하니 더 놀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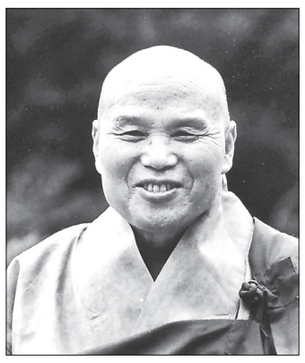
붓다 가르침대로 살지 않으니
스스로 일으킨 어리석음으로
인간은 생사윤회 괴로움 받아

실제 미얀마 파욱명상센터의 파욱스님의 법문집 〈사마타 그리고 위빠사나〉(무념 옮김, 명상선원 오솔길)라는 책을 보니 "12연기를 관찰하는 방법"에서 '연기는 과거, 현재, 미래의 3기간 동안에 작용하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이다' 하며 과거로 나아가서 '전생의 죽음의 순간의 순간의 정신-물질을 볼 수 있을 것이다'고 안내한다.

현존하는 남방 상좌부 승가의 대표적인 선지식이라는 파욱스님은 이렇게 전생을 관찰하는 수행법을 익힌 사람은 '미래의 삶에서 원인과 결과를 식별할 수 있다'고 한다. 더 나아가 파욱스님은 이렇게 내생을 관찰하는 수행법을 안내한다.



티베트 탱화 육도윤회도.



성철 스님은 "마음의 눈만 뜨면 지상이 극락"이라고 말했다.



남방 상좌부 승가의 대표적 선지식 파욱 스님.

"여러분이 보게 될 미래는 계속 변할지도 모르지만, 과거와 현재의 결과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관찰해서, 무명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수많은 미래의 삶을 식별해야 한다. 무명의 소멸은 아라한도의 증득과 함께 일어난다. 과거 현재 미래에서 정신-물질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식별했다면, 당신은 두 번째 통찰지(위빳사나), 즉 원인과 조건을 식별하는 지혜를 완성한 것이다."

파욱스님은 과거 전생을 관찰하여 통찰지를 얻은 사람은 미래 내생을 관찰하여 무명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미래의 삶을 식별해서 마침내 무명을 소멸시켜 아라한도를 증득하는 내생 관찰 수행법을 닦으라고 안내한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다. 전생도 알 수 없는데 내생까지 관찰하는 수행이라니….

무아(無我)라고 생사 윤회는 없는가?

간혹, 유튜브나 SNS를 보면 불자라면서 윤회와 인과를 부정하는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죽어서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 누가 알 수 있느냐고 말한다. 실은 경전에도 이런 주장과 반박의 문답이 나온다. 〈장아함경〉 '폐숙경'에 보면,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마하가섭이 500비구와 함께 코살라국 어느 숲에 머물고 있을 때 근처에 사는 한 바라문이 '저 세상이란 없으며 윤회전생도 인과응보도 없다'고 주장하며 가섭 존자를 찾아와 이렇게 문답한다.

"나는 저 세상도 윤회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존자의 생각은 어떤가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는가?"

"내 친척 중에 병들어 죽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저 세상이 있거든 구경하고 돌아와 나에게 말해달라고 했는데 그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비유로 말하겠다. 어떤 사형수가 사형집행장에서 급한 볼 일이 있으니 집에 잠깐 다녀오겠다고 한다면 그 소원을 들어주겠는가?"

"저 세상이 있다고 치자. 그러나 저 세상으로 가는 사람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무아'란 부처님 말씀 이해했다고
생사윤회서 벗어나는 것은 아냐
생각으로 무아를 이해한 것일 뿐

"비유를 들겠다. 그대도 잠잘 때 꿈을 꿀 것이다. 그대가 꿈꾸는 것을 그대의 가족들이 볼 수 없다고 그대에게 인식이 없는가?"

생사 윤회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경전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말씀을 하셨다. 그럼에도 부처님의 지혜와 말씀을 믿지 않는 이는 윤회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생사 윤회를 바로 보지 못하고 부정하는 이는 영원히 윤회와 인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무아이니 윤회란 없는 것인가?

흔히 불교 공부를 좀 한 불자도 부처님이 무아(無我)를 말씀하셨으니 "무아인데 무엇이 윤회하느냐"면서 윤회를 부정하는 이들도 있다. 부처님이 중도를 깨치고 무아의 지혜를 말씀하셨다고 해서 '내가 무아'를 깨치지 못했다면 '내가 있다'는 분별망상을 없애지 못한다.

'무아'라는 부처님 말씀을 이해했다고 생사 윤회에서 해탈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생각으로 무아를 이해한 것일 뿐이다. 무아라고 아무리 말하고 생각한들 무아가 되어 해탈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입으로 밥을 말하고 아무리 간절히 밥 생각을 할지라도 굶주린 배를 채울 수는 없다. 오직 각고의 정진으로 무아임를 깨달아 증득해야 한다. 입으로만 무아를 말하고 행은 유아에 머물러 있다면 생사 윤회의 괴로움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불교는 무아이니 윤회가 없다고 말하는 견해를 부처님은 단견(斷見)에 떨어졌다고 경책하셨다. 반대로 내가 있다고 보고 깨달음과 무아를 부정하는 이를 부처님은 상견(常見)에 떨어졌다고 하셨다. 부처님의 정견은 단견과 상견의 양변을 떠난 중도 무아이다.

생사 윤회에 대한 禪의 지혜

본래성불을 종지로 하는 선종에서는 생사 윤회를 어떻게 보는가? 선종의 6조 조계혜능대사를 찾아가서 첫 만남에서 깨침을 인가 받고 〈증도가(證道歌)〉라는 주옥같은 선어를 남긴 영가 현각 대사는 이렇게 말한다.

"조계(曹溪)의 길을 깨치고부터는 생사와 상관없음을 분명히 알았도다"

선(禪)에서도 부처님처럼 깨치면 생사 윤회에서 해탈하는 것이다. 영가 대사가 말하는 조계의 길이 바로 부처님이 깨친 중도를 말한다.

조계종에서 소의경전으로 삼고 있는 〈금강경〉에서 부처님은 "과거의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없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설법하셨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영원히 돌이킬 수 없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얻을 수 없다. 현재도 또한 무상(無常)이고 무아(無我)이니 잡을 수 없다. 이것이 중도 정견이고 선의 지혜이다.

우리나라 선사 성철 스님은 이렇게 말한다.

"생사(生死)란 모를 때는 생사입니다. 눈을 감고 나면 캄캄하듯이. 하지만 알고 보면, 눈을 뜨면 광명입니다. 본래 생사란 없습니다. 윤회를 이야기하는데 윤회라는 것도 눈감고 하는 소리입니다. 사실 눈을 뜨고 보면 자유만 있을 뿐이지 윤회는 없습니다. 현실을 바로만 보면, 마음의 눈만 뜨면 지상이 극락입니다. 이 현실 이대로가!"(성철 스님과 법정 스님의 대담, 1982년 1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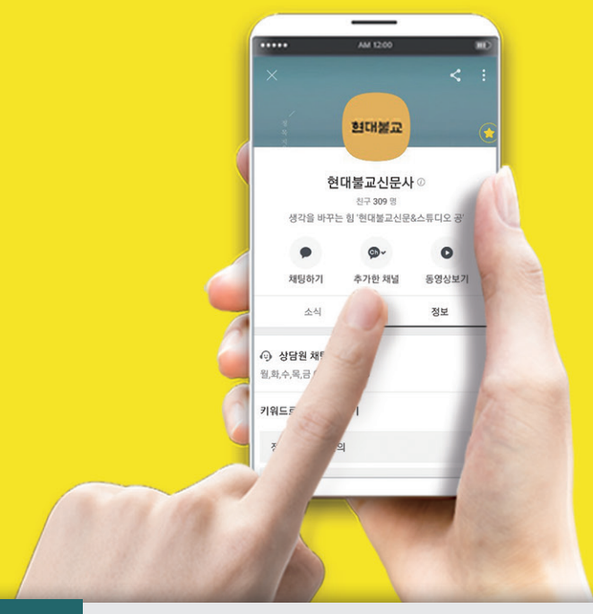
성철 스님이 생사도 윤회도 본래 없다고 해서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아니다. 깨달은 이에게는 생사 윤회가 없다는 말이지, 깨치지 못한 중생에게는 생사 윤회는 멀고도 멀다.

〈불교인재원 생활참선 지도교수
(사)한국명상지도자협회 사무총장〉

구독 및 후원

이제 손쉽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보내주세요

문자 · 카카오톡 접수 010-4648-8200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및 구독신청서 양식

현대불교신문 후원금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후 원 금 액 : 매월 원 (매월 5,000원 이상)
▮접 수 방 법 : 자동이체, 무통장입금
▮자 동 이 체 :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농협은행 053-01-269075 □예 금 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무통장입금 후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구독 신청서

▮성 명 : ▮전화번호 : ▮주 소 :
▮납 부 방 법 : 자동이체(월 구독료 5천원)
□은 행 명 □계좌번호 □예 금 주
□예금주 주민번호(앞 6자리)
▮이체 희망일 : □ 5일 □15일
▮입금 계좌번호 : □국민은행 245-25-0001-461 □농협은행 053-01-269050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